

日 도호쿠대와 '전략적 동반자' 로

전북대, 글로벌30 추진 벤치마킹 일환... 도호쿠대 방문 도호쿠대, 일본 정부 지원 국제탁월연구대학 유일 후보 정부 초대형사업 추진 양 대학 공동발전 '윈-윈'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일본 도호쿠대학교와 지속가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30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과 이동현 교무처장, 조화립 국제처장 등은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에 따른 벤치마킹 일환으로 지난 27~29일 도호쿠대학교를 방문했다.

도호쿠대학교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국제탁월연구대학'에 선정된 대학이다.

이번 방문은 두 대학이 정책적 연대와 국제 공동연구 확대를 모색하고, 또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 등에서 윈-윈하는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방문에서 양 총장 일행은 도호쿠대학교 토미나가 총장과 우에키대 의협력부총장, 타키자와 교육 및 학생 지원부총장을 만나 전북대 '글로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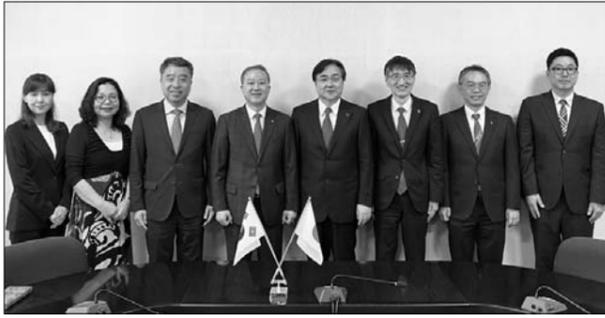
업', 도호쿠대학 '국제탁월연구대학'에 관련한 대학 혁신 정책 등을 공유했다.

특히 전북대 자연과학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램프(LAMP) 사업과 관련해 도호쿠대학교와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또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연구를 수행하는 재해과학국제연구소(IRDeS)를 찾아 연구 시스템을 둘러봤다.

전북대 방문단은 도호쿠대학교 산하 유체과학연구소(IFS)에서 미루타 연구소장을 만나 유체과학 연구소의 점진적인 관계 증진 및 향후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했다.

도호쿠대학교의 유체과학연구소는 전통적으로 유체과학의 근간을 이루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과 이동현 교무처장, 조화립 국제처장 등은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에 따른 벤치마킹 일환으로 지난 27~29일 도호쿠대학교를 방문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는 열·유체의 유동, 연소 분야 뿐 아니라 항공우주, 에너지, 배터리, 녹색 기술, 생체 및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및 활용될 수 있는 유체과학에 대해 폭넓게 연구를 수행 중이다.

양오봉 총장은 "일본 도호쿠대학교와 우리 전북대는 양국의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을 이어가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

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더불어 국제교류나 국제 공동연구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학교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일본 도호쿠대학교와 1991년 11월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장은성 기자

ESM 소비자평가 '대상' 수상

우석대 입주기업 다산생활건강, 유통·플랫폼 부문

우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주)다산생활건강(대표이사 김동조)이 최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



실에서 열린 '제7회 ESM 대한민국 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유통·플랫폼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주)다산생활건강은 소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회에서 '핵심 바자어 MSM'과 '나누리 MSM 수제비누'가 97점을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의 가족기업인 (주)다산생활건강은 현

제 약학과 연구진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김동조 대표이사는 "창업보육센터와 LINC 3.0 사업단, 약학과 등의 도움으로 제품의 품질과 더불어 회사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다"며 "앞으로 바이오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석대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다산생활건강은 지난해 '전북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100'에 선정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도내 공립학교·기관 대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

전북자치도교육청, 총 722곳... 6월 1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준수 사항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14일까지 도내 모든 공립학교와 기관 등 총 72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른 조치 이행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이행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 실태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의 안전보건활동을 점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점검 결과 안전 및 보건 조치사항 이행률이 낮은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노조

조합원 리더십 함양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0~31일 이틀간 여수에서 지방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노조조합 조합원 리더십 함양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 황태하), 전북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익철) 조합원을 대상으로 바깥집안 노사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단체협약 스킬과 임원진의 자제 △중양 상급단체 대정부 교섭 쟁점 이슈 △리더십 함양 △노사 갈등 이해와 의사소통 향상 등이다.

특히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참가를 통해 전북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노사 간 협력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노조는 우리의 동반자로 노사가 상호 신뢰와 존중의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해 협력적·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서 대한민국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올바른 안보의식 교육, 보훈의 가치·중요성 계승"

서거석 교육감,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 가져

서거석 교육감이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서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광복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전물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수입무 전북지부회,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전우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참석했다.

전북보훈단체협의회 이상만 회장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과 보훈단체가 협력해 학생들의 보훈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안보의식 교육으로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구 학부모회

직원·사무실무사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0일 전주평화회관에서 구 학부모회직원 및 사무실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이 연수는 올해는 시간을 확대하고, 연수 내용도 다양화했다.

구 학부모회직원 및 사무실무사들은 행동유형(DISC) 검사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 영상을 제작해 보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익혔다.

이상근 예산과장은 "이번 연수는 구 학부모회직원 및 사무실무사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행정업무 지원의 효율성 높이고자 마련됐다"면서 "연수 참여자들이 현장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과학영재들, 전북대서 전문교육 받는다

초등생 55명 대상 입학식 갖고

9월까지 수학 등 4개 분야 교육

도내 과학영재들이 전북대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전문교육을 받는다.

30일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범대학 과학관에서 전북 과학꿈나무 키움 교육에 선발된 지역 초등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문교육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훈찬 원장의 인사와 교육과정 안내 등이 진행됐다.

전북 과학꿈나무 키움 교육은 (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이 일부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수학, 생물학, 지질학, IT융합 4개 분야에서 주말교육, 여름방학집중



지난 25일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관에서 전북 과학꿈나무 키움 교육에 선발된 지역 초등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입학식이 열린 가운데 참가 학생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교육, 현장견학활동 등을 통해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지원한다.

과학영재교육원 순훈찬 원장은 "과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통해 학생들의 재능을 키우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은 1998

년 전북대 사범대 과학교육연구소 내에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센터'로 설립, 2002년 전북대 부설기관인 '과학영재교육원'으로 승격돼 올해로 27년째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모두 5,392명의 학생이 수료하는 등 전북지역 과학영재교육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한국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호텔그룹은 지난 29일 전주대학교 문화관대체 105호 호텔 서비스실습실에서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리어트 커리어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메리어트 커리어 페스티벌' 전주대서 개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호텔경영학과 학생 대상 실전 모의 면접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호텔그룹이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에서 '메리어트 커리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30일 전주대에 따르면 한국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호텔그룹은 지난 29일 문화관대체 105호 호텔 서비스실습실에서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리어트 커리어 페스티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전주대서 열린 커리어 페스티벌에는 JW메리어트 동대문, JW메리어트 서울, 르 메르디앙 목시, 메리어트 코트야드 남대문, 알로프트 명동, AC금정 등 6개 호텔이 참여했다.

6개 호텔 인사담당자는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전 모의 면접을 진행했다.

'메리어트 커리어 페스티벌'은 우리나라 최고의 글로벌 호텔그룹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태도나 말투, 자세 등을 바로잡아 면접 스킬과 요령을 코칭하는 행사로, 호텔리어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귀한 시간이었다. /장은성 기자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 신봉린 인사 이사는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와는 이미 15년 넘게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번엔 대학생들을 직접 찾아가는 행사를 기획, 그 첫 번째 대학이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였다"며 "앞으로도 전주대학교가 메리어트 호텔 그룹과 더 발전적인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심영국 학과장은 "메리어트 호텔그룹은 오랫동안 우리 학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해마다 메리어트 호텔 그룹에서 우리 학과를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2024년 5월 현재 싱가포르, 괌, 베트남 등지에서 해외 취업 365명을 달성, 특히 졸업생 가운데 많은 학생이 메리어트 호텔그룹에서 호텔리어로서 활발한 활동과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